

1980년대 미국 고용 증대의 허실

미국의 1980년대는 고용 성과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들을 보이는 반면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엇갈린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1980년대 미국의 고용 성과가 가지는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흔히 강조되어왔던 고용 성과의 양적인 측면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채진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의 광범한 고용 창출은 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로부터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된다. 1980년대 유럽과 대조되는 미국의 실업률 추이는 미국의 고용 성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해석들을 대립시키게 되고 1990년대 까지 그 논의들이 연장되고 있다.

미국의 1980년대는 실업률 상승으로 시작된다. 1980년과 1981~82년의 불황기를 통해 미국의 실업률은 전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79년 민간 실업률은 5.7%이었다가 1980년에는 7.0%, 1981년에는 7.5%, 1982년에는 9.5%, 1983년에는 9.4%를 나타낸다. 그러나 1983년 이후로 1990년까지 전개된 회복기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1989년에는 5.2%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확대는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 실업률의 하락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경험은 유럽의 상황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초반 이후로 미국의 실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의 회복기에도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경험은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을 촉발시키게 되는데, 먼저 '실업률의 하락과 고용의 신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는 어떠한 것

이어야 하는가' 라는 논쟁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흔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이라고 불린다. 이 논쟁은 아직까지 충분한 이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 성과에 대한 해석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흐름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임금 불평등도의 확대' 논의이다. 즉 미국의 1980년대는 고용 성과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들을 보이는 반면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잇갈린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1980년대 미국의 고용 성과가 가지는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흔히 강조 되어왔던 고용 성과의 양적인 측면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관 : 인구역 특성

미국의 고용 성과가 갖는 특징을 주요 선진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미국의 고용 증가율과 고용 증가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1]을 보면 1970~90년 기간 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 등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모두 1% 이하의 수준인데 반해 미국의 고용 증가율은 2.0%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간 약 3,900만의 고용 순증가로도 표현된다.

[표1] 인구 및 민간 고용의 증가 : 1970~90

(단위: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고용 증가율	2.0	0.4	0.3	0.3	0.5	1.0	0.9
인구 증가율	1.6	0.4	0.9	0.7	0.9	1.2	0.6

그러나 고용이라는 지표만으로 국가간 성과를 비교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일국의 고용 성과는 인구(생산가능인구), 참가율, 실업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간에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먼저 1970~90년 기간 국가별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해당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그러면 실제로 인구증가라는 요인이 국가간 고용 증가율의 편차는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해당 기간 각국별 참가율과 실업률은 유지한 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을 각국 별로 적용해서 가상의 고용 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인구 증가라는 요인이 국가간 고용 증가율의 편차 중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미국과 스웨덴간 고용 증가율 편차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율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간 편차의 3/4정도가,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간의 편차 중 40~50%가 인구 증가율의 편차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국가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미국의 고용 증가율은 상당부분 높은 인구 증가율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고용 성과를 명목치(3900만)나 증가율(2.0%)로 국가간에 비교하는 방식이 그 성과를 과장하는 측면을 갖게된다는 점과 따라서 고용 성과의 국가간 비교는 인구 증가율과의 대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후에도 드러나는 미국의 특징이 있으며 그것은 높은 고용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즉 1970~90년 기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6%였는데 고용증가율은 이를 상회하는 2.0%였고, 이에 반해 스웨덴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고용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고용 성과가 보이는 인구 특징은 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와 인구의 연령 및 성적 구성 변화라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일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러면 고용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및 구성 변화, 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 등이 가지는 차별적인 효과를 검토해보자. 즉 두 시점간의 고용 변화분은 인구의 증가, 인구의 구성 변화, 참가율과 실업률 변화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요인들이 가지는 전체 고용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¹⁾ 1970~90년 기간 미국의 고용 증가분을 100이라고 할 때, 개별 요인들의 기여 정도는 [표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구체적인 검토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70년의 성별 인구 비율을 1990년의 인구 비율로 적용해서 1990년의 가상적인 고용 수치를 성별로 계산한 뒤, 이를 1990년의 실제치와 비교해서 생산가능인구의 성적 구성 변화 효과를 전차항으로 표현한다. 다음으로는 1990년의 가상적인 성별 고용치를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고용 증가의 세 가지 요인들(인구, 참가율, 실업률)이 가상적인 1990년 고용 수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고용 증가는 인구 효과와 참가율 효과, 실업률 효과, 참가율과 실업률의 동시 변화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라는 네 가지의 항목들로 구분되어 표현된다.

[표2] 고용 증가의 인구 요인들 : 1970~90

(단위: %포인트)

전체	인구	참가율	실업률	상호작용	잔차
10074.5	26.2	-1.7	0.3	0.6	
남성 39.4	46.4	-7.6	-2.1	0.1	2.6
여성 60.6	28.1	33.9	0.5	0.2	-2.0

자료 : Godbout(1993)

위의 표는 1970~90년간 고용 증가분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인구, 참가율, 실업률의 기여 효과를 계산한 것이므로, 먼저 전체 고용 증가 중 남성보다 여성의 기여도가 더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고용 증가분 중 남성의 기여도는 39.4%인데 반해 여성의 기여도는 60.6%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다양한 요인들 중 인구 증가의 효과(74.5%)가 가장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 증가의 효과는 주로 남성(46.4%)에게서 크게 나타나며, 여성(28.1%)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지적인 고용 증가에 대한 여성의 높은 기여도라는 특징과 연결시킨다면 여성의 고용 확대는 인구의 증가라는 효과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라는 요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참가율의 효과를 살펴보면, 1970년과 1990년의 비교에서 남성의 참가율은 하락하여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7.6%)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참가율은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 성과에 대한 효과가 33.9%로 나타나게 된다.

실업률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970년과 1990년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업률의 효과 또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 실업률의 상승으로 고용의 감소 효과를 가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 실업률의 하락으로 인해 고용의 증대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편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과 1981~82년의 불황기를 통해 미국의 실업률은 전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79년 민간 실업률은 5.7%이었다가 1980년에는 7.0%, 1981년에는 7.5%, 1982년에는 9.5%, 1983년에는 9.4%를 나타낸다. 그러나 1983년 이후로 1990년까지 전개된 회복기에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1989년에는 5.2%를 나타낸다. 즉 1970년과 1990년은 모두 실업률이 상대적

으로 낮은 시기였다.

그러면 미국의 1980년대에 실업률의 하락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고용 확대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 그 산업 성격과 임금 성격을 살펴보자.

2. 산업적 특징

고용 성과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경제의 어떤 부문들에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는지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미국의 경우 특정 서비스 부문에 의한 고용 증가가 전체적인 고용 성과를 주도하는 특징, 즉 '고용 성과의 높은 산업 집중도'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1970~90년 기간 3,900만이라는 미국의 고용 순증가 중 3,600만 정도가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²⁾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자.

1980년대 미국의 고용 성과에서 나타난 산업 특징은 1979년 정점을 이룬 제조업의 고용 수준이 1980년대를 통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러한 제조업 고용의 정체화 전체 서비스 부문과 그 중 특정 서비스 부문의 고용 확대에 힘입어 상쇄되고 전체적인 고용 확대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 고용 확대 중에서 특정 서비스 산업들의 기여도(집중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자.

다음의 표에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성과가 해당 대분류 산업 내에서 중분류 산업들의 기여도와 전체 고용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표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분류 산업으로서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1980년대 전체 민간 고용 증가의 84.6%(=27%+57.6%)를 설명하며, 중분류 산업으로는 이들 산업들 내에 있는 음식점업, 식료품점업, 사업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등에 고용 확대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즉 소매업의 고용 성과 중에서 음식점업과 식료품업의 고용 확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매업 내에서

2) 이러한 특징은 서비스 부문이 고용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선진국가들에서도 나타난다. 즉 서비스생산 부문의 고용 비율 상승이라는 현상은 선진 국가들에서 장기적이면서 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선진 국가들과 대비되는 측면은 서비스생산 부문으로 고용 중심의 이동이라는 장기 추세라기보다는 그러한 추세가 좀 더 일찍 나타난다는 점과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을 포함한 재화생산 부문의 상대적인 고용 정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던 미국 서비스생산 부문의 고용 팽창은 그 증가율 상의 국가간 차이보다는 서비스생산 부문의 상대적인 고용 비율 상의 국가간 차이에 의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한편 경제의 고용 부문을 농업, 산업, 서비스이라는 세 부문으로 구분할 때, 미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율이 전체의 60%를 상회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이며 1990년에 이르러서는 70%를 상회하게 된다. 이에 반해 독일·일본·이탈리아의 경우 1990년이 되어서도 서비스 부문에 고용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80년대에 60%를 상회해서 1990년에는 64.6% 정도가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OECD Job Study(1994)).

[표 3]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성과 : 1979, 1989.

(단위: 천명, %)

	1979	1989	1979~89 고용변화	산업내 기여도(1)	민간 부문 기여도(2)	전체 기여도(3)
소매업	14,987	19,575	+4,586	-	27.0	24.4
음식점업	4,513.1	6,369.9	+1,856.8	40.5	10.9	9.8
식품업	2,296.8	3,269.5	+972.7	21.2	5.7	5.2
서비스업	17,112	26,892	+9,780	-	57.6	52.1
사업서비스업	2,905.9	5,788.7	+2,882.8	29.5	17.0	15.4
의료서비스업	4,992.8	7,635.3	+2,642.5	27.0	15.6	14.0

자료: 사업장 조사자료(CES)의 각 산업별 1979년과 1989년 고용 수치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71.7%이며, 민간 고용 확대의 16.6%를 차지한다. 대분류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산업과 의료서비스산업에 고용 확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 중분류 산업의 고용 성과는 서비스업 고용 성과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하며, 각각 민간 고용 확대의 17%와 15.6%를 차지한다. 간단히 1980년대 미국이 보여준 고용 확대의 10개 중 8개가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10개 중 하나가 음식점업에서, 6개중 하나가 사업서비스산업과 의료서비스산업에서 각각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 산업들의 성장 조건들은 차별적인 것인데,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등의 소매업은 분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구의 증가나 소득의 증대라는 일반적인 요인 이외에 인구의 구성적 변화나 생활 양식 상의 변화 등과 이에 대한 소매업 기업 내부의 경영 변화 노력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매업의 고용 신장은 그 직업 특성과 높은 단시간 고용, 평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절적인 성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³⁾

다음으로 서비스업을 살펴보자. 서비스업은 1980년대 미국 고용 성과 중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대분류 산업으로서 호텔·숙박산업, 개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자동차수리·차고, 각종 수리서비스, 영화산업, 오락산업, 의

3) 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 형태로는 단시간 고용의 비율이 전체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 인구 특징으로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직업 특성으로는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임금 수준의 측면에서는 전체 산업의 평균 이하 수준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소매업의 임금은 전산업의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내는 저임금 산업이다.

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중분류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산업들 중 특히 두 개의 중분류 산업이 고용 성과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하나는 사업 서비스 산업인데, 이 산업은 해당 시기 전체 중분류 산업 중에서 전체 가장 빠른 성장 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의료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 서비스업 내에서 가장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산업은 1980년대에 고용 증가의 속도는 사업 서비스 산업의 절반 정도였지만 그 높은 고용 비율로 인해 고용의 증가 규모가 상당히 컸다. 이 두 산업은 1979~89년 기간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중 56.5%를 설명한다.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고용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행태변화나 사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서비스 산업의 신장을 가능케 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 불황기 이후 많은 기업들에서 조직을 간소화하려는 동기에 의해 기존에는 기업 조직 내에서 수행되던 업무들이 외부화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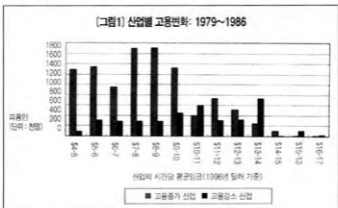
한편 의료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수요-공급 조건이 다른 산업들과 구별되며, 따라서 경기 불황기에도 고용 추이가 별도 영향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1980년대 의료 서비스업의 성장 조건들로는 인구의 노령화, 새로운 치료 기술의 개발, 정부의 의료보상 프로그램 변화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중 특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의료 서비스업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에 의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의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의료 보험업의 고용 수준 변동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게 한다.

그러면 이렇듯 차별적인 요인들에 의해 성장하면서 고용 성과를 주도한 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과 제조업의 고용 정체는 전체적인 고용(혹은 직업)의 질적인 측면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자.

3. 임금적 특성 :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

임금이라는 척도를 통해 고용 성과의 질적 측면을 검토해보자. 이러한 검토는

직업(job)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산업을 직업의 단위로 설정하고 새로이 창출된 직업과 사라진 직업의 임금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323개의 세분류 산업을 해당 산업에서의 시간당 평균 임금에 따라 6개의 산업임금계층을 구분하고 1979-86년 기간 해당 산업 임금계층의 고용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임금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이 확대된 산업들과 고용이 축소된 산업들을 구분한 뒤 각각의 임금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저임금산업에서 고용 창출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occupation)을 단위로 고용 성과의 직결인 변화 양상을 살펴 보자. 먼저 직업 구성의 변화 양상을 대분류 직업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1980년대는 판매직과 관리직, 전문직의 고용 비율 상승과 기계공, 정밀생산·기능·수리공 등의 블루칼라 직업과 관리 보조직의 고용 비율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직업별 임금 추이에서 고용 비율이 상승한 관리직, 전문직, 판매직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일용잡직, 운송·운반직, 기계공, 정밀생산·기능·수리공 등의 블루칼라 직업 임금은 하락하는 추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대분류 직업 구분에 따른 위계 구조 분석은 동일 직업 그룹 내의 상당한 임금 편차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세분류 산업별 직업의 위계구조를 살펴봐야 그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직업-산업 cell 자료를 이용해 직업간 증가 편차를 살펴보면, 1983~93년 동안에 전체 직업의 양적 확대는 서비스직, 전문직, 관리보조직 등 특정 직업들에 집중되어있으며 이러한 개별 직업 집단의 고용 확대는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이제 이를 직업 위계 구조의 변화와 연계시켜보자.

[표 4] 직업 위계 구조의 변화: 1983~93

임금 범위 (단위: 달러)	직업의 수	1983년		1993년		1983~93 변화	
		수치	%	수치	%	수치	%
111~1,131	278	92,567	100.0	112,312	100.0	19,726	100.0
① 551~1,131	93	22,534	24.3	28,282	25.2	5,748	29.1
② 378~540	91	21,172	22.9	26,012	23.2	4,834	24.5
③ 259~374	58	26,627	28.3	29,839	26.6	3,612	18.3
④ 111~249	36	22,648	24.5	28,179	25.1	5,531	28.0

자료: Rosenthal(1995), p.50, 표 4.

비고: 임금은 중위 주당 임금, 전체 피용인을 대상으로 함.

1993년 피용인의 직업별 중위 주당 임금을 기준으로 직업별 순위를 배열한 후 1993년의 고용 비율이 유사한 4개의 직업임금계층으로 직업 위계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1983년의 위계 구조와 비교하면,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고용 변화율이 각각 29%와 28%로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하위 두 번째 직업임금계층의 고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를 나타낸다. 즉 직업 위계 구조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취업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임금 위계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980년대 이후로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중간 임금계층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임금계층과 저임금계층의 상대적인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또한 임금 불평등도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나 1980년대 미국의 상황은 임금 불평등도의 증가가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를 수반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임금 위계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963~87기간 연중 상근직의 연 임금소득 분포를 저임금층 - 중간임금층 - 고임금층으로 나누어서 저임금층

과 고임금층의 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저임금층의 경우 1960년대에는 고용 비중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다가 1970~78기간에는 별다른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시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임금층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고용 비중이 급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 1970년대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다. 그러나 1981년 이후로는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대는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의 고용 비중이 함께 상승하면서 중간층을 위축시키면서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가 진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 5]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 : 1979~87

	고용인 수		분포(1) 1979~87			분포(2) 1979~87		
	1979	1987	1979	1987	%변화분	1979	1987	%변화분
전체	(천명)		(%)			(%)		
저임금층	6,420	9,839	11.0	13.7	2.8	11.0	13.6	2.6
중간임금층	46,684	54,174	79.6	75.5	-4.1	79.6	75.5	-4.1
고임금층	5,514	7,742	9.4	10.8	1.4	9.4	10.9	1.5
총계	58,618	71,755	100.0	100.0		100.0	100.0	
남성								
저임금층	4,455	6,423	11.8	14.9	3.1	11.8	16.1	4.3
중간임금층	30,626	32,862	81.0	76.3	-4.7	81.0	75.6	-5.4
고임금층	2,724	3,764	7.2	8.7	1.5	7.2	8.2	1.0
총계	37,805	43,049	100.0	100.0		100.0	100.0	
여성								
저임금층	1,477	3,150	7.1	11.0	3.9	7.1	7.9	0.8
중간임금층	18,353	23,461	88.2	81.7	-6.4	88.2	81.5	-6.7
고임금층	984	2,094	4.7	7.3	2.6	4.7	10.7	5.9
총계	20,814	28,705	100.0	100.0		100.0	100.0	

자료 : Bluestone & Harrison(1990), pp.359-360.

주: 연중상근직의 통상 시간당 임금(usual hourly wage and salary income)을 대상으로 함. 통상 시간당 임금은 연 임금-불급 소득을 (연간 실제 취업 주 × 주당 통상 작업시간)으로 나눈 것. 분포(1)- 해당 연도의 중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50% 이하를 저임금층, 200%이상을 고임금층으로 구분함. 분포(2)- CPI-X1으로 조정된 1979년의 중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50% 이하를 저임금층, 200% 이상을 고임금층으로 구분함.

구체적으로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1979년의 저임금층·중간 임금층·고임금층의 고용 비율은 각각 11.0%, 79.6%, 9.4%였는데, 1987년 해당 임금계

층의 고용 비율은 각각 13.7%, 75.5%, 10.8%를 나타낸다. 즉 저임금층의 고용 비율은 1979~87년 기간에 2.8%포인트 상승하고, 고임금층의 고용 비율도 해당 시기 1.4%포인트 상승하는데 반해 중간임금층의 고용 비율은 4.1%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한편 저임금층 고용 비중의 확대 추세가 갖는 성격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는 남녀 각각에 대해 모든 연령 그룹들과 대졸자를 제외한 모든 학력 그룹들 내에서도 나타난다. 즉 추세의 패턴 상엔 차이가 없고 그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여 20~34세 남성 고졸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또한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모두에서 이러한 추세는 나타난다.

그런데 저임금층의 고용 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고용 성과의 성격을 살펴 보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생산성의 변화(혹은 실질임금의 하락)에 따른 전체 분배 수준의 변화 효과이다. 즉 저임금층의 확대 추세가 실질임금의 하락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저임금 직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블루스톤과 해리슨(Bluestone & Harrison, 1990)에서는 임금 지표를 통상 시간당 임금(usual hourly wage and salary income)로 선정하고 두 가지의 규모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효과를 분석한다. 즉 해당 연도의 중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분배 효과만을 측정하고(표5)의 분포(1)), 다음으로는 경기변동의 정점이었던 1979년의 중위 시간당 임금을 각 연도의 중위값으로 이용해 임금계층을 구분함으로써 분배의 변화와 전반적인 실질 임금의 수준 변화가 혼합된 효과(표5)의 분포(2))를 측정한 뒤 양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생산성 효과를 구분한다.

먼저 분배 효과만을 측정한 분포(1)을 보면, 1979년 이후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고용 증가는 임금 분포의 양극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녀 모두에서 중간 임금층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면서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의 고용 비중이 증가해 임금 위계 구조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5)에서 남성의 경우 1979~87년 기간에 저임금층의 변화폭이 분포(1)에서 3.2 %포인트, 분포(2)에서 4.3 %포인트로 나타나며, 따라서 재분배 효과가 1979년 이후 저임금층의 고용 비중 증가 중에서 3/4 정도를 설명하게 된다. 즉 1979년 이후로 연중상근직 남성은 중위 임금의 하락과 재분배의 악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악화된 재분배가 저임금층의 고용 비중을 3.9 %포인트 증가시켰지만 중위 임

급의 상승에 기인해 실제 측정된 증가분은 0.8 %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녀 전체에서의 저임금층 증가는 재분배의 악화, 즉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1980년대 미국의 고용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전체적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여성의 참가율 상승 추세가 실업률의 하락을 동반하는 미국의 고용 확대는 주로 특정 서비스 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고용 성과의 임금적 특징으로 중간임금의 직업들이 축소되고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임금 위계 구조의 양극화는 임금 불평등도의 확대의 또다른 표현으로서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그간의 놀랄만한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즉 장기간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회복(1980대)과 호황(1990년대 중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풀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업 문제로 고민하면서 미국의 성과를 부러워하는 다른 나라들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학자들의 눈길은 경제적 성과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임금 불평등도의 확대 문제에 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 성과는 답습해야 할 대상도 아니며 답습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하나의 독특한 국가 경험이라 할 수 있다.❖